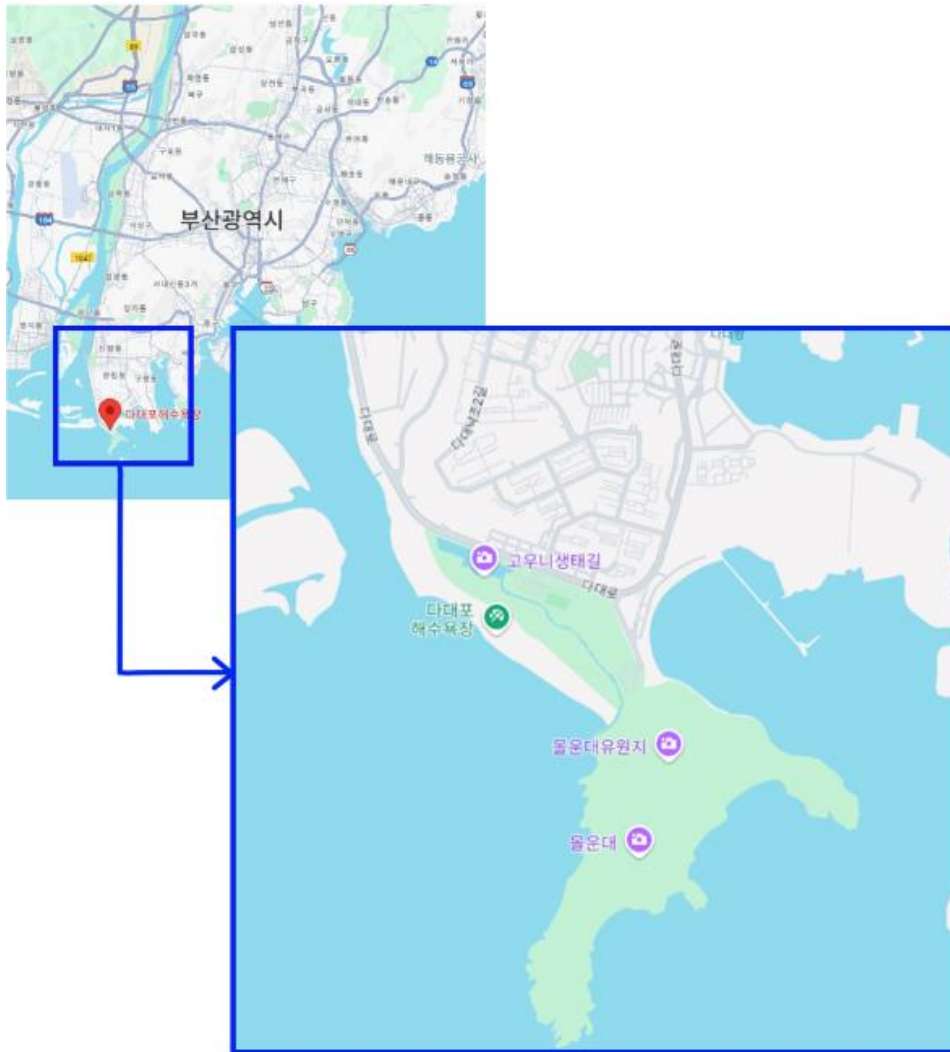


2025바다미술제 전시장소 소개

다대포해수욕장

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서쪽에 위치한 다대포해수욕장은 낙동강 하구 경계부에 토사가 퇴적되어 형성된 해수욕장이다. 조선 시대에는 경상 좌도 7진 중 하나였으며 이후로도 국방의 요새지로 이용되었다. 다대포는 크고 넓은 포구 라는 뜻으로, 다대포해수욕장(서쪽) 면적은 5만 3000㎡로, 길이 900m, 폭 100m에 이르며 평균 수온이 21°로 비교적 따뜻하고, 수심이 1.5m 정도로 얕은 편이다. 다대포해수욕장은 부산의 7장7대(七場七臺) 중 7장의 하나로 모래사장, 갯벌, 바다 그리고 강을 동시에 볼 수 있으며 일출과 일몰을 모두 감상할 수 있다. 2024년 10월 다대포해수욕장(동쪽)은 약 10년에 걸친 '부산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사업'을 마쳤으며 옛 백사장의 모습을 되찾았다. 다대포해수욕장 인근에는 꿈의 낙조분수, 해변공원, 갈대밭, 물운대 등이 있으며 백사장 맨발걷기, 산책로 걷기, 갯벌 체험, 낚시, 서핑 등 수상 레포츠를 즐기는 방문객들이 많이 있다.

1. 위 치



[▷구글 지도 보기](#)

2. 전시장소 일대 전경

① 다대포해수욕장(서쪽)



② 다대포 해변공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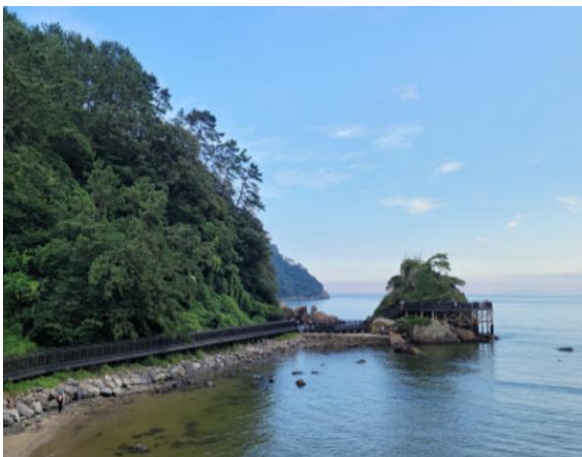
③ 다대포해수욕장 진입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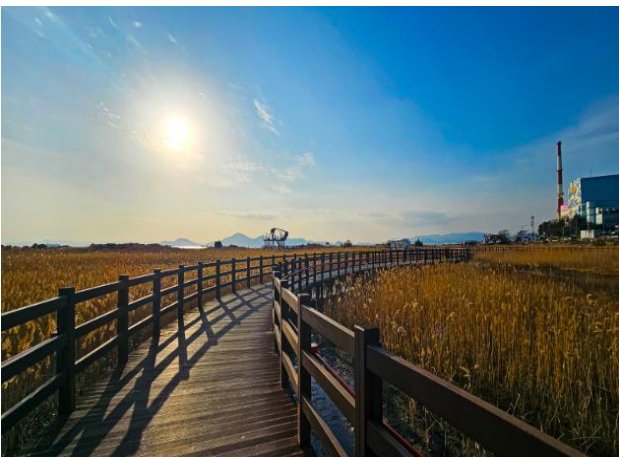
④ 다대포해수욕장(동쪽)



⑤ 물운대 전망대



⑥ 고우니 생태길



3. 장소 관련 링크

- ▷ [VISIT BUSAN 홈페이지 \(다대포해수욕장\)](#)
- ▷ [VISIT BUSAN 홈페이지 \(다대포 해변공원\)](#)